



광주글로벌모터스 관계자들이 양산차 '캐스퍼'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제공

광기술원, 머신비전 자동초점 무선제어 기술 개발

최대 10m거리서 스마트폰 제어
스마트팩토리 핵심 기술 기대

한국광기술원이 '머신비전(눈으로 보고 뇌에서 판단하는 것을 카메라와 영상인식 알고리즘이 대체한 시스템)카메라용 자동초점 무선제어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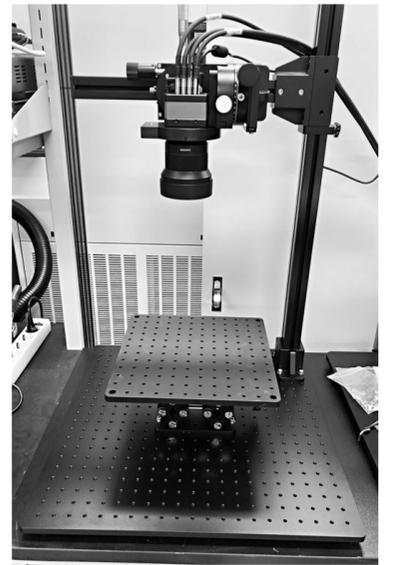
5일 한국광기술원에 따르면 기존 머신비전 카메라는 기기 자체 자동초점기능이 없어 특정 부품을 검사하기 위해선 고정 배율로만 촬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최근 생산 환경에 맞춘 부품측정을 위한 자동초점 조절 기능 수요가 증가하자 지능형광학모듈연구센터 한승헌 박사 연구팀은 기존 상용화 자동초점 교환렌즈를 머신비전 카메라와 결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교환렌즈 무선제어 모듈은 광학 조절용 거리 측정장치를 탑재, 자동 초점 조절이 가능하면서 블루투스를 활용해 무선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측정장치의 최대 측정 거리는 2m로 최소 1mm 이내 거리정밀도를 가졌으며, 무선제어 기능은 최대 10m거리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다.

개발된 기술은 지원사업 주관기업인 ㈜삼양옵틱스로 기술이전을 완료했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삼양옵틱스는 머신비전 사업에 진



출하기 위한 ICT 기술을 확보했다.

박종복 한국광기술원 지능형광학모듈연구센터장은 "머신비전 무선제어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스마트팩토리 구현의 기반 기술이 될 핵심 ICT 기술"이라며 "지능형광학모듈 연구센터는 광융합 ICT 기술 개발을 통해 지능형 광학 모듈 및 시스템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GGM, 올해 5만대 목표 달성할 듯

상반기 2만2,500여대 생산
반도체 수급난에도 흑자
"상생형 일자리 기업 성공 확신"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가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난과 경기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한 올해 목표 생산량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5일 GGM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GGM의 누적 생산량은 3만 5,000대로, 생산이 본격화된 올해부터는 2만 2,500여 대를 돌파했다.

GGM이 상반기 이러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국 봉쇄령

등 영향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자 현대자동차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캐나다 등에서 부품을 긴급 공수하는 등 발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 주효했다.

이와 더불어 첫 차 출시 때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캐스퍼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캐스퍼 밴'을 생산,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킨 점도 상반기 순항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GGM이 상반기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하반기 생산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 1일 민선 8기 광주시장으로 취임한 강기정 시장은 지난 4일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찾아 근로자 대표 등과의 대화를 통해 근로자들이 요구해 온 사회적 임금을 대해 "광주시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광주시와의 상생 실전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는 "상반기는 반도체 부품 수급난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으나 모든 임직원이 상생의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이를 극복해내면서 하반기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생산에 임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부터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함과 동시에 광주시가 주거비 지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GGM의 여건도 좋아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5만대 생산 목표 가능성을 물론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상생형 일자리 기업으로서 안정하고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본부세관장, 여수산단 석유화학업계 간담회

지역 수출주력산업 적극 지원

광주본부세관은 5일 경제활력 회복과 수출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여수석유화학 산업계의 7개 주요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는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 확대와 석유화학 화물특성을 고려한 세관의 물품관리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임원들에게 여러 건의사항을 수렴해 사안별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를 관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광주본부세관장이 5일 경제활력 회복과 수출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여수석유화학 7개 주요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신협,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돕는다

어부바부채 12만 개 배부
지점 내 무료생수 비치도

광주전남지역 신협(이하 신협)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나선다. 신협은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정, 마을회관 등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던 시설이 문을 닫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폭염을 피하기 어려워진 지역 어르신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지점 새롭게 꾸미기에 나섰다.

이번 행사준비를 위해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신협 어부바부채 12만 개를 각 조합에 배부, 신협중앙회-조합간 업무협의를 통해 조합 지점 내 무료생수를 비치할 계획을 세우는 등 지역 어르신들의 확실한 무더위 해소에 앞장설 예정이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김영하 본부장은 "신협의 어부바부채가 이번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협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신협은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온세상나눔, 어부바멘토링, 집수리 봉사 등과 같은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기부금 및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오지현 기자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결의' 전남농협, "권익보호 최우선"

농협전남지역본부 5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금융소비자 실천의지 제고를 위해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결의대회에서 박서홍 본부장 등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금융소비자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책임 있는 상호금융 구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우성진 기자

농협전남지역본부는 5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금융소비자 실천의지 제고를 위해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결의대회에서 박서홍 본부장 등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금융소비자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책임 있는 상호금융 구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우성진 기자



봉고 III EV 냉동탑차

기아, '봉고 III EV 냉동탑차' 출시

배송시장 수요·친환경 정책 반영

기아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Purpose Built Vehicle, PBV)의 방향성을 담은 '봉고III EV 냉동탑차'가 출시된다.

5일 기아에 따르면 봉고III EV 냉동탑차는 지난 2020년 1월 출시한 봉고III EV 초장축 킹캡 기반의 특장 모델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급증한 시장 수요와 고객들의 의견 및 친환경 정부 정책을 반영해 개발했다.

실제 국내 온라인 식품 시장규모가 2019년 약 26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58조 5,000억 원으로 2배 넘게 성장하면서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냉장·냉동탑차 시장 또한 같은 기간 1만 7,300대에서 2만 1,200대로 22% 증가했다.

이에 봉고III EV 냉동탑차는 차량에 장착된 고전압배터리를 활용해 냉동기를 가동하고, 보조배터리를 추가 장착해 외부 특장업체 차량 대비 350kg 향상된 1,000kg의 적재중량을 제공할

뿐 아니라 별도의 보조배터리 충전 없이도 탑차의 기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했다.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를 탑재해 냉동기 미가동상태 기준 완충 시 177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했다.

냉동기 효율도 극대화해 냉동기를 가동하더라도 1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기차의 장점을 살려 5분 이상의 공회전이 제한되는 디젤차와 달리 정차 시에도 냉동기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운영성도 확보했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저상형과 표준형 2개 모델로 출시된다.

기아 관계자는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개인과 소상공인, 대형 업체의 니즈를 두루 반영한 상품성과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친환경 배송 맞춤형 차량"이라며 "봉고 III EV 냉동탑차로 친환경 유통 생태계를 확충하고 국내 냉장·냉동 물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아파트 특별공급

남약신도시 총 24세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1일 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무안 오룡지구 우미린'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무안군 남약신도시 오룡지구에 위치한 '무안 오룡지구 우미린'은 총 1,057세대 (1차 5개동 372세대·2차 9개동 685세대) 규모의 아파트이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는 각각 9세대, 15세대가 특별공급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추천자 선정은 재직기간·수상경력·자격증 등의 가점요소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일반유형 주점업, 무도유형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캠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 근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홍승현 기자